

<Bitter Chocolate :Investigating the Dark Side of the World's Most Seductive Sweet>

출판사 Random House Canada 저자 Carol Off 발행연도 2006년 10월

대략적인 내용: 초콜릿의 기원인 마야-아즈텍 문명에 대한 설명과 스페인이 이들을 멸망시키면서 이를 유럽에 소개한 과정, 초콜릿이 고체바의 형태로 발전된 과정, 초기 초콜릿 거대 산업가들의 이중적 위선과 국제적 착취에 대한 무감각, 제국주의적 삼각교역에 의한 코코아 재배지의 착취,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인권이 확립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노예노동을 불러일으키는 코코아 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다루면서, 초콜릿은 소수의 엘리트(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소수 엘리트에 속한다고 보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초콜릿을 만드는 다국적기업과 초콜릿 중개상 기업들을 가리킨다)의 취향을 위해 사회적 약자가 착취당하는 거대한 범죄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중심지 코트디부아르의 근현대사가 놓여 있다. 맨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공정무역운동, 유기농운동, 그리고 소비자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그 한계를 다루고 있다.

요약체계:요약은 각 장별로, 각 절별로 이루어졌으며, 9장과 12장은 요약없이 일부발췌본역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장

1절

초콜릿이 칵테일 형태로 마시는 것이었던 시절부터 고체로 먹는 지금까지, 가난한 계급의 고된 노동으로 특권집단이 그 맛을 즐겨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절

미국 인류학자인 Sophie와 Michael Coedp 따르면 Omel인들은 계급기반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갔던 최초의 아메리칸인들이었다. 즉 소수의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의 노동에 기반하여 안락한 생활을 즐겼고, 이들이 최초로 코코아 제조법을 알아내지는 않았더라도, 그 생산의 정교한 방법들을 발전시켰다. 마야인과 올멕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류학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야인이 후손인지, 교역상대였는지, 단순한 이웃이었는지. 마야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통치하면서 올멕문명은 사라졌다. 마야귀족들은 매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초콜릿 음료를 마셨다. 음료 위에 거품을 내는 것은 고위층의 접대에 맞는 방식이었

다. 코코아는 종교적 의식과 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다. 좋은 코코아 수확을 위해 죄수를 비롯한 사람들을 이용한 희생제의가 이루어졌다. 19C에 마야문명은 가장 광대하였으나 계속되는 전쟁과 낭비적이고 부패한 귀족제에 대한 반발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3절

콜럼버스는 마야문명 또는 그 살아남은 일부를 1502년 마지막 신세계 탐험에서 만났다. 콜럼버스 일행은 땅과 부를 찾고 있었지 문화적 경험을 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원주민의 신비스러운 배를 포획한 것이 우주민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던 코코아라는 작물을 서구인들이 처음 만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 이상한 아몬드 모양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502년 콜럼버스가 첫 번째로 신대륙을 밟았을 때 마야가 지배하던 대륙의 깊은 곳은 아즈텍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즈텍의 수도로 피지배지역의 산물이 공물로 바쳐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코코아 음료였다. 당시 아즈텍의 왕 Montezuma도 코코아를 매일 같이 엄청 난 양을 마셔댔다. 코코아 열매는 오직 엘리트만 즐기는 것이어서 화폐로까지 사용되었다. 아즈텍의 수도에서는 코코아가 생산될 수 없는 기후여서 피지배지역에서는 그 공물을 올리느라 농부와 노예들이 신음하였다.

왕은 도처에 적이 많았으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측근과 무자비한 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피지배계층의 예언에 관한 신앙, 즉 긴수염과 흰 피부를 가진 빛의 신이 나타나 황제를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의 보이지 않는 힘은 황제라도 어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4절

스페인의 찰스 5세는 발견되지 않은 부유한 사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페인의 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이 사회를 정복하고자 하였고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 코르테스가 그 중의 일원이었다. 코르테스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유카탄 반도로 떠났다. 코르테스가 이끈 스페인군은 기독교를 전파하리라는 사명감을 지님으로써 훗날 학살과 정복을 정당화하였다.

찰스왕은 그의 종복이 될 원주민의 문명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데 바로 이로 인하여 매력없는 코코아 열매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는가 하는 신비를 유럽이 발견할 수 있었다.

코르테스군은 갖고 갈 만한 것을 닦치는 대로 선적하는 여행자들이었지만, 개종의 임무를 띤 신부들은 인류학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들을 작성했고, 바로 이 중에 코코아 제조과정이 적혀 있었다. 코르테스 자신은 초콜릿 음료에 결코 맛을 들이지를 못했다. 그러나 노예거래 등에 있어 그것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은 곧 깨달았다.

코르테스가 그 지역의 관습을 배워감에 따라 그는 그가 도착한 곳이 광대한 제국의 끄트머리에 있으며, 그 제국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지방 부족들이 수도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코르테스는 그가 왕을 복속시킬 수 있노라고 말하고는 황제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령을 보내게 하였다.

5절

비정상적으로 생긴 백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수도의 황제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다. 당시 아즈텍에는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재림하리라는 것과 같은 미신적 예언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자연재해와 괴이한 사건들의 보고로 52년 주기마다 되풀이되는 신의 강림이 예견되고 있던 시기였다.

황제 몬테주마는 신을 기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보냈다. 헤르난 코르테스는 교활한 정치기술자였다. 선물은 받았지만, 친히 황제를 꼭 만나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전사들과 싸우고 중앙 아메리카의 우림의 뱀 독충 기후와 싸우느라 병사들의 상당수를 잃으면서 그 문명의 수도를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인도에서 무어인과 싸워본 베테랑이자 사디스틱한 고문 기술자였던 부관 Alvarado의 활약으로, 그들은 원주민을 고문하여 수도를 향하는 길을 찾아내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코르테스가 수도에 도착했을 때, 스페인군은 그 휘황찬란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당시 수도의 군세를 고나찰하던데, 1000명 남짓한 스페인 여단은 아즈텍군에게 한주먹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과 같이 생긴 백인에게 지배받는 것이 숙명이라 생각한 몬테주마 황제의 미신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정복자의 오만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 코르테스군은 황제를 통해 수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스페인에 계속해서 귀한 물품들을 보냈다.

6절

그러나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오기전 배반했던 전 장관이 그에게 체포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는 Vera Cruz로 돌아가 파견된 병사들과 대치해야 했고, 그들을 격퇴시키거나 매수하여 일을 해결하고 난 뒤 수도에 돌아와보자 그는 통제권을 잃었음을 발견하였다. 부관 알바라도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종교행사를 반란으로 착각하여 학살을 명했던 것이다. 결국 거대한 소요가 일어났고 황제를 통해 군중을 통제하려 했지만, 성난 군중은 황제에게 돌을 던지고 비웃을 뿐이었다. 코르테스군은 수도를 도망쳐나와 재공격의 계획을 세워 <슬픈 밤>이라 불리는 대학살을 감행하여 수도를 정복하였다. 황제는 학살과 소요 중에 죽었다. 이리하여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대하던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돈이 열리는 나무로 여겨졌던 코코아의 생산은 그러나 계속되었다.

2장

1절

코르테스는 그 지역의 식민화 작업에 곧 착수하였다. 그러나 유럽문화가 직설적으로 이식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원주민들은 그들의 노예이자, 하인, 그리고 병사들의 신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문화는 어느 정도 융합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스페인에서 온 신부들은 새로운 문물을 기록하는데 열심이었다. 도미니카 수사들은 코코아를 사용한 음식제조법을 최초로 배웠으며, 그들은 유럽인의 풍미에 맞게, 향료와 설탕 등을 첨가해서 다양한 변용물을 만들어냈다. cacahautl이라는 음료의 명칭도 chocolatl이라는 명칭으로 음운학적 변화를 겪었다. 이는 오늘날 초콜렛chocolate이란 명칭에 가깝게 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코코아가 스페인 문화와 융합되어 유럽대륙에 퍼져나가는 데에는 훨씬 많은 해가 소요되어야만 했다.

코르테스가 아름다운 조각, 신기한 야생동물과 원주민들을 찰스 왕에게 헌사했을 때의 기록에는 어찌된 일인지 코코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코르테스가 코코아 열매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주로 그것이 아메리카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2절

1543년 찰스가 제위를 그의 안르 필립에게 물려주었다. 필립은 스페인이 그 먼 땅에서

일으키는 영향을 고려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죽이는 것으르 승인하지 않은 최초의 유럽 군주였다. 그의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의 주 원천은 도미니카 수사인 Las Casas였는데 그 수사는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원주민을 대량학살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 둘째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원주민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식민지 정책은 제대로 운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절과 존중이 강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기존 원주민들의 정치체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필립은 이런 주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군주였다.

스페인인 코코아 제조법을 독점했고, 16세기 말에 코코아는 대륙간 교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코코아 열매의 거래 역시 수십년간 스페인이 독점했다. 정복자들은 멕시코시티에서부터 팽창하여 원래 아즈텍 제국의 전역을 식민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마야인들에게 계속해서 가중되었던 코코아 생산의 압박은 오늘날 Belize와 Guatemala의 코코아 산업의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수사들과 젊은 필립왕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코코아 대농장plantation의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더욱 더 비참한 것으로 변해만 갔다. Las Casas는 기독교로 개종한 원주민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하며 인디안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할 새로운 입법을 군주에게 제안했으나, 코르테스는 강제노동 없이는 식민지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갈파, 무자비한 착취는 결국 계속 시행되었다.

3절

스페인과 이후 유럽에서 초콜렛의 인기가 높아진 가닭은 의료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널리 퍼진 신념에 부분적으로 연유한다. 오늘날, 화학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중이다. 초콜렛은 섹스자극과 같은 즐거움을 주며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고, 각성효과를 주는 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한다. 그 의학적 효과가 진실이든 아니든 코코아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었다.

4절

필립II세가 등극했다. 재정적 문제와 신대륙에서 유입된 부가 일으킨 인플레이션이 골칫거리였다. 필립2세는 이 문제에 대해 식민지에서 더 많은 부를 착취해내는 것 이외의 해결방안을 알지 못했다. 원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미니카 수사의 고발과 대량학살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만적 착취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 오기에 이르렀다.

5절

코코아는 파리, 이탈리아에 보급된 뒤 영국의 템즈강 까지 진출하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폐쇄적인 살롱에서 초콜렛 음료가 소비되었던 것과는 달리, 영국인들은 공중 커피숍과 초콜렛 하우스를 열었다. 마침내 초콜렛은 계몽주의의 혁명적 사상들이 논의되고 연구되는 탁자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성의 시대와 초콜렛이 사회적 음료로 등극하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유와 평등 박애에 대하여 논하고 인간 권리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그들이 즐기는 초콜렛과 커피는 노예의 피와 땀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코코아 생산은 노예를 아메리카로 보내고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삼각교역이라는 무서운 체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이상적 기획과 계

몽적 성찰을 하는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는 상업의 시대, 새로이 만개한 사업가 계급이 부와 공공 영향력을 방해받지 않고 획득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초콜릿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결국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의 플랜테이션의 능력을 압도하여, 코코아 생산지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자마이카로 점점 확대되었다.

3장

1절

산업 혁명으로 소수 엘리트들만 즐기던 소소한 즐거움들이 대중화되었다. 초콜릿도 그 중 하나였고 서구의 노동자들은 그 새로운 즐거움을 열정적으로 탐닉하였다.

2절

마야와 아즈텍인들에게 가치롭게 여겨졌던 코코아의 지방은 근대 영국인과 유럽인의 식감에는 맞지가 않았다. 암스테르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야망찬 네덜란드 10대 소년 Coenraad Van Houten은 어떻게 코코아 열매에서 지방을 분리해 내는가 하는 문제에 골몰하였다. 거기에는 수압 프레스가 요구되었고, 이는 마야인이나 올멕인이 손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작업이었다. 후텐이 고안한 코코아 압력기는 6천 파운드의 압력을 사용해서 코코아에서 지방질을 분리하였다. 이는 코코아 제조와 관련하여 최근 3천년 동안 이루어진 최초의 주된 개선이었으며, 후텐은 네덜란드의 제일가는 코코아 가루 생산 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코코아 생산지 역시 노예노동을 이용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초콜릿의 사소한 진보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언제나 노예노동에 기반한 산업을 건립했던 것이었다.

3절

19C 브리튼이 성공회 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 잉글랜드의 웨이커 교도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와 사업에 뛰어들었다. 코코아를 정제하는 것을 넘어서 Fry 패밀리가 초콜릿을 수력 압력기를 이용, 고체의 형태로 만들어냈다. <입안에서 녹는 맛>의 이 고체 초콜릿은 대량생산과 가격인하를 가능케 했고, 현대식 초콜릿 바를 만들어냈다.

그 이후 John Cadbury가 한입에 넣어 녹일 정도의 조각으로 초콜릿을 나누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빛나는 예쁜 포장지에 넣어 생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초콜릿의 최종형태가 만들어졌다. 캐드베리는 뿐만 아니라 초콜릿을 발렌타인 데이의 일부이자 낭만적 사랑의 상징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4절

웨이커 교도들은 도덕적 이상을 중시했고, Rowntree와 캐드베리는 노동자의 복지를 배려하는 공장을 실험적으로 건립했다. 웨이커 교도들은 초콜릿 산업을 지배하였으나, 그들의 사회적 양심은 유럽 내부에 제한되어 있었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주어진 숙명을 어찌할 수도 없는 위생산지의 주민들의 고통에는 무감하였다. 찰스와 필립 그리고 Las Casas가 실패했던 도덕적 문제제기는 신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운동의 담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혁의 열망으로 가득찬 현지조사 기자들!

5절

잉글랜드 출신 Nevinson은 기자였고, 그 시대 다른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콩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보도하는 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Harper가 그에 대한 기사를 쓸 것을 제의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당시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던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II세는 형식적으로는 콩고를 독립국가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8세기 가장 최악의 착취를 능가할 정도의 착취를 감행하였다. 강제노동을 거부하는 원주민은 무참하게 죽였다. 그 당시에 이러한 착취와 학살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벨기에에는 공공연히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데도 벨기에 국왕은 휴머니즘을 준수하는 국왕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Edmund Morel이 리버풀의 선적회사에서 일하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입수하고 읽어본 네빈슨은 레오폴드의 교활한 눈속임을 알아챈 자기가 자기 혼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네빈슨은 이 문제를 모렐의 바톤을 이어받아 평생동안 파헤쳤으나,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하였다.

6절

19C 중엽 캐리비안의 코코아 나무 숲은 과잉생산과 형편없는 경영에 의해 고갈되어 버렸다. 그러나 코코아 무역상들은 코코아 열매는 적도에서 20km 근방의 비슷한 습한 기후에서는 어디든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에, 포르투갈인들은 기니아만에 코코아 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때까지는 아프리카인들을 아메리카로 실어날랐지만 이제는 직접 코코아 나무를 아프리카에 심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결국 아프리카인들은 계속 코코아 생산을 해야만 했다.

그 당시 앙골라인들을 코코아 농장에서 일시켰던 포르투갈인들은 문서상으로는 앙골라인들이 자유로운 임노동자임을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노예였다. 규율에 따르지 않고 달아나는 자는 심각한 고문을 당한 뒤 죽었고, 노예들은 족쇄를 차고 일하기도 하였다. 50년 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기록이 쌓여왔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적절하게 조사된 적은 없었다. 1904년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네빈슨은 초콜릿 공장주이자, 모렐의 후원자이며 그 자신 사회사업가이기도 했던 캐드베리를 만났다. 캐드베리는 원산지의 노예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체 하는 듯한 인상을 네빈슨은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 노예제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며 임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짓보고를 캐드베리는 애써 믿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농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살아 돌아간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7절

하퍼지에 네빈슨의 기사가 나가고 난 뒤, 포르투갈산 코코아 열매에 대한 보이콧이 주장되었으나, 캐드베리는 그들과 계속 거래하는 것이 더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들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다. 결국 개혁자들은 영국 정부에게로 달려갔다. 영국 정부는 인권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그 자신들이 중국 쿨리들의 노동력의 착취하여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유지하고 있었다. 언론이 이 문제를 공격하자 그들은 새로운 노동력의 원천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의존해야 할 실정이었다.

캐드베리가 운영하는 진보적인 신문들은 종래 쿨리 시스템을 비판해왔으므로, 네빈슨의 기사 이후 보수 신문들은 기회가 왔다 하고, 캐드베리를 위선적인 인간으로 거칠게 몰아세웠다. 캐드베리는 자체 조사팀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포르투갈산 코코아를

사들이는 지연술을 썼고, Reporter지의 지면을 이 보고가 채우는 데는 그로부터 20년이나 걸렸다. 보수주의자들은 노예제도 자체보다는 케이크 교도 급진주의자들의 위선을 질타하는 데에 더 신을 내고 있었다.

1909년 캐드베리는 직접 아프리카 코코아 생산지의 노동현장을 보러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Gold Coast가 영국과 캐드베리의 새로운 완벽한 원산지가 될 수 있음을 그 여행에서 확인한 후에야-이것이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이기도 하였다-포르투갈산 코코아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캐드베리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정에서, 캐드베리 형제는 외무성을 탓하는 것 말고는 왜 보이코트를 그토록 미웠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산업적 명성 덕택에 배심원들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8절

노예제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과 이를 위법으로 규정한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19C말과 20C초에서만 800만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과잉노동과 학살로 죽어나갔다.

4장

1절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 사례인 Milton은 잉글랜드 후손으로 Lancaster Caramel Company의 기업주가 되었다. 당시 이미 스위스의 Henri Nestle이 코코아 버터와 파우더 밀크를 융합한 밀크 초콜릿을 개발하여 각광을 받고 있었다. Hershey Milton은 오리지널한 미국 버전으로 밀크 초콜릿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캔디산업의 헨리포드 즉 모든 미국인들이 부담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 초콜릿 바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결국 해냈고, 이 모든 공정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대량생산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아몬드 바가 나왔고, 허쉬 키세스 초콜릿까지 시리즈들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억만장자가 된 이 펜실베이니아 농부 출신 청년은, 가난과 폐약이 없는 새로운 공장 공동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현실화시키기를 원했다. 그는 그의 고향 Derry에 수백 에이커의 땅을 샀다. 2년 뒤 허쉬는 캐드베리와 로운트리를 훨씬 능가하는 가장 대담한 사회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위생적인 거대한 공장이었지만, 거기에 놀이기구가 있는 위락시설, 호수크기의 수영장, 공동체 분위기가 나는 집 건축과 수많은 극장이 곁들여진 것이었다. 이 공동체는 초콜릿을 먹고 음악을 듣고 휴양을 즐기려는 수많은 방문객들을 불러 모았고 미국의 고리타분한 자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의 공장은 건립된지 5년 내에 연수익 5백만불을 달성했고, 충성스러운 노동자들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다. 허쉬는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탁아소와 고아원까지 건립하였다. 2010년 즈음하여 밀튼 허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허쉬의 관대함을 다른 자본가들은 비웃었으나, 당대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은 그를 모두 칭송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각, 브리튼의 초콜릿 생산자들은 대중으로부터 다른 반응을 받고 있었다. 영국 언론인들은 초콜릿 산업의 숨겨진 비용 즉 인간성의 비참한 몰락을 드러내었다. 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미국의 초콜릿 왕도 결국에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음을 발견할 터였다.

2절

노예무역은 1840년대 중반에 공식적으로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선언된 인간성과 정의의 승리는 사기적인 것이었다. 이전과 다른 노예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1918년까지 콜리들이 아시아로부터 캐리비안의 섬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노동력을 교역하는 상인들은 아시아 노동자들을 동물처럼 다루었다. 이를 고발하는 개혁적 언론인도 없었다.

허쉬는 미국에서 코코아 원재료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기업가 중 하나였다. 다른 제조업자들은 코코아 버터와 파우더를 허쉬로부터 구입했다.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뉴욕의 교역은 캐리비안과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모으는 일이 그 주된 핵심이었다.

1910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의회로부터 노예제로 생산된 코코아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당시 미국인들은 노예제라는 단어에는 민감하였으나 형식만 바뀌어 그 실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아메리카의 노동실태는 이제 미국 자신의 책임이 되기 시작하였다. 쿠바는 1902년 독립선언을 했으나 그 주권은 시작부터 픽션이었다. 워싱턴은 쿠바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내의 재산권 등의 일에도 간섭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설탕 산업자들은 쿠바의 대농장에서 콜리와 흑인노예를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질서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미국의 캔디와 음료 산업자들이었다.

허쉬가 코코아를 어디서 구했는가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그가 이런 쿠바의 대농장에서 설탕을 얻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모든 업적들은 다른 나라의 다른 인종들의 노예적 착취라는 기반 위에서 있었다.

3절

1937년 허쉬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믿고 매점을 했다가 천만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2차세계 대전이 벌어지자 대영제국은 가격통제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원산지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4절

허쉬는 그의 노동자들의 모든 물질적 요구와 정신적 요구를 다 들어주고자 하였으나, 자치가 없는 공동체는 영주 허쉬에 반기를 들고 파업을 했다. 밀튼 허쉬는 충격을 받았다. 1937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조직되어 회합을 갖기 시작했다. 허쉬 타운의 노동자들도 곧 그들과 함께 행진하게 되었다. 허쉬는 이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600명의 노동자들이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그 문을 체인으로 감아걸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행동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허쉬의 종복과 지지대는 물리적으로 파업노동자들을 때려 눕혔다. 허쉬는 자비로운 독재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성과들은 끝이 나고 더 이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을 터였다. 결국 회사는 미국총노동자연맹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 때는 노동자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죽어가는 시기였다. 세계는 바뀌고 있었고 허쉬는 그에 적응하지 못했다.

5절

허쉬 다음으로 윌리엄 머리Murrie가 최고경영자 자리를 이어 받았다. 그는 일상의 경영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타입이었고 사회공학 프로젝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초콜릿에 높은 열량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워싱턴 당국을 설득하여 그것을 군인들의 생존 키트에 포함시키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1940년 허쉬 회사의 생산물

중 대부분은 준수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 그 뒤 머리는 최고경영자 자리를 떠나고는, 영국에서 돌아온 또 다른 사업가인 Forrest Mars와 공조하여 M&Ms라는 회사를 건립하였다. Mars and Murrie라는 뜻이다. 이 회사는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며 허쉬의 시장 지분을 침식해 들어갔다.

6절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초콜릿 산업은 비밀스러운 제조법을 지닌 많은 회사들이 격하게 경쟁하는 영역이 되었다.

5장

1절

서아프리카 골드 코스트 지역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Quarshie는 1870년 말에 코코아썬르 가져와 골드 코스트에 심었는데 그로부터 30년 뒤 캐러비안과 라틴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에 병충해가 휩쓸고, 그 지역만으로는 세계의 증가하는 수요를 막아낼 수 없게 되자, 그가 심었던 코코아 나무의 성숙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춘 셈이 되었다. 골드 코스트는 1920년에 세계 최대의 수출지역이 되었고 대영제국으로부터 1956년에 독립하였다. 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Kwame Nkrumah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프리카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선동, 좌파적 견해로 인해 고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때야 아프리카에 비로소 자유와 자치가 들어서는가 하는 기대가 만발해 있었다. 은크루마는 1960년대에 코코아 생산자들의 카르텔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코코아 열매의 가격을 고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카르텔은 지속되지 못했다. 은크루마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 실현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사실 은크루마 자신의 부패와 무능이 그의 새로운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향한 메시아적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카르텔이 붕괴되면서 거대 초콜릿 기업들이 코코아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격으로는 코코아 나무를 유지하는 비용이 코코아 판매가격을 넘어서게 되자, 가나 농부들은 기존 농장을 내버려두고 매년 가나의 열대우림을 자르고 코코아 나무를 새로 심었고 이런 식으로 열대우림이 사라지자 심각한 가뭄이 도래하였다. 1980년 초에 마침내, 재앙적인 화재가 가나의 코코아 작물들을 대부분 파괴해 버렸다.

초콜릿 회사들은 수세기 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초콜릿에 중독된 세계의 수요자들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장소를 찾아냈는데 그곳이 바로 코트디부아르였다.

6절

펠릭스 우푸에는 1905년 유명한 지주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의사로서 훈련받았으나 완전한 면허를 받은 의사가 되지는 못했다. 1930년 그는 의료일을 포기하고 그의 아버지의 코코아 농장에서 일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우푸에 부아니는 차별적인 프랑스 정책, 즉 프랑스인이 생산한 코코아에 가격을 더 쳐주는 프랑스의 정책에 반대하여 정치를 시작하였다. 1944년 그는 아프리카 농부 연대SAA를 발족시켰다. 프랑스는 1945년 처음으로 식민지의 구성원들이 프랑스 의회 의석 하나를 두고 선거를 하도록 허락했고, 우푸에가 그 의석을 차지하여 프랑스 의회로 진출하였다. 그는 코트디부아르 민주당PDCI을 창설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1949는 PDCI는 아이보리언들에게 점점 나빠지는 경제조건에 대항하여 거리에 나서도록 촉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식민지에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항에 놀랐고 당황했다. 군대가 투입되어 숫자불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3천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우푸에의 정당과 그의 개인적 힘은 오직 커져만 갈 뿐이었다.

그는 원래 기질상 혁명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가에 가까웠다. 1950년에 그는 급진주의로부터 다시 실용적 온건주의로 완전한 정치적 선회를 하였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과의 모든 연결의혹을 부인하였고-애초에 연결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다고 말했다- 식민지 행정에 협조할 의도였음을 이야기했다. 파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코코아와 커피시장을 보호하는 등 식민지 우호정책을 펼쳤다. 1960년 7월에 코트디부아르는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안으로는 유럽인과 원주민과의 차별정책을 방관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독재적으로 억누르면서 밖으로는 개방적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태도가 선진 자본주의 파트너들을 흡족하게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코코아 생산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우푸에의 기적은 그러나 신기루의 일종이었다. 그는 코코아 생산가의 일부를 차관을 통해 보조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막대한 국제채무와 재정적자가 초래되었다. 1980년대 말 코코아와 커피가격이 폭락하자 우푸에는 코코아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상품시장은 극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작은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세계시장에 조그만 영향조차 미치기 힘들었다. 세계시장가격은 이미 브로커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다.

1987년 그는 코트디부아르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 나라의 코코아 이동을 모두 막고 세계시장을 보이콧했다. 2년 동안 그는 말 그대로 자기나라 경제를 멈추었고, 정부기구도 그 활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파멸해졌고, 결국 대통령은 전 식민지 지배 국가인 프랑스와 밀약을 맺어 현존하는 모든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를 프랑스의 두 거대기업에 공여하는 대가로 많은 양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그것은 지구상 가장 값고 닭은 솜씨의 도박사들이 벌이는 큰 포커판 한판과도 같았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이 이 밀약을 폭로했고 딜은 곧 깨어졌다. 우푸에는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간 셈이었다. 이것은 그의 완전한 패배였고 다국적 코코아 회사의 완전한 승리였다.

7절

1980년에 IMF와 세계은행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국제기구가 되었고 신자유주의적 통화 외교정책으로 더더욱 많은 나라들을 쓸어버렸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세계은행에 구원의 손길을 구했고, 세계은행과 아엠에프는 오직 한가지 처방만을 쟁기하였다: 자유화의 충격 요법

파산한 국가는 그들의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비롯 국내경제의 정부간섭을 모두 철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보험, 공공교육과 같은 공공 간접기반에 대한 지출도 최소로 줄어들었다. 통화는 평가절하되어야만 했다. 채무국가는 그들이 기르는 곡물을 모두 수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국민이 먹을 식량은 모두 외국(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공기업은 사유화되고 매각되었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들은 레이건식 자유주의 경제의 바다에 아무 장비도 없이 내던져졌으며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 그들이 의존했던 구매력은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붕괴되었다. 이 모든 나쁜 영향은 초콜렛 회사와 다국적 식량 수출자들에게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

량은 늘어났다. 세계은행과 IMF의 권고에 의해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이 코코아를 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코코아는 더욱 넘쳐났고 이것이 다시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

20세기 후반부에 코트디부아르는 그 기적을 모두 잃었다. SAP가 갖고 있던 코코아 산업에 대한 통제력은 다국적 기업이 가져갔다. 우푸에는 25년 동안 귀자에 머무르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그의 집권기 말에는 몇가지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함께 치솟는 실업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자유선거는 거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코트디부아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빛이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나라가 지구의 코코아 중 반을 생산하여 다국적 기업이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고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콜릿에 중독되게 한 그 모든 대가로 말이다.

6장

1절

Macko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인 Bouaké의 말리 영사였다. 말리 정부는 2000년에 그를 소환했고 사표를 쓰게 하였다. 그것은 그가 너무 많이 휘젓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코트디부아르의 핵심적인 코코아 생산지인 Bouaké에서 아동들이 인신매매되어 노예처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코는 듣게 되었다. 마코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귀로 듣고 흘리거나 그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고는 신경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다. 도대체 누가 감히 1990년 대에 어린이를 노예로 부려먹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마코는 그가 들은 참상에 사로잡혔고 이 소년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를 느꼈다. 외교관으로서 그 자신의 활동은 제약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그 지역의 말리인들을 조직하여 위원회를 만들어 사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 자신도 여러 가지 구실을 대어 농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진을 비롯 많은 증거자료들을 모았다. 무거운 짐을 들어서 생긴 상처와 맞아서 생긴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어 굼아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질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소년의 사진도 그 중의 일부다. 마코는 오직 어린 노동자들의 일부만을 해방시켰으며 그가 애초에 접촉조차 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예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절

말릭Malik은 14살 때 남부 말리에서 여향을 떠나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했다. 그 후 몇 년 동안(말릭은 몇 년이나 지났는지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그는 노예로서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였다. 말릭은 코코아 열매가 무엇에 쓰이는지, 왜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린 바나나와 양으로 연명하였다. 폭풍이 치던 어느날 낮에 어둠이 지게 깔리자 말릭과 그의 친구들은 영사 마코의 네트워크에 접촉하여 그들에 의해 해방되어 말리 남부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말릭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무일푼에 함께 지니고 온 것이라고는 골병밖에 없는 말릭을 보고 그의 가족들은 슬퍼하였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의 어린이들-아마도 수천명의 어린이들이-노예로서 아직도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3절

Aly Diabate와 Madou Traoré는 인신매매 당하였다가 마코에 의해 구출되었다.

4절

마코가 말하길, 농부들은 인신매매업자의 정교한 네트워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진짜 약당들은 농장주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농장주에게 납치해와 팔아넘기는 범죄집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농장주들은 경쟁의 압력에 의해 어린이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자칭 ‘직업 브로커들’은 말리 사회에 오랜 세대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신뢰의 문화를 이용하여 손쉽게 어린이를 납치하여 팔아치울 수 있었다. UNICEF와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사태를 안지 몇 년이나 지났으나 이를 멈출만한 능력이 없었다. 마코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역 정부들은 그 일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마코는 이들 양쪽 정부 모두에게 그 범죄 네트워크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5절

1997~2000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마코는 어린이들을 찾아내고 해방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말리 정부는 코트디부아르와 외교문제가 불거지길 원치 않았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일하는 수많은 말리인들은 돈을 벌어 집에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 상호호혜적인 질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다.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인권보고서2000에서 미당국은 약 1만5천명의 말리 어린이들-대부분 12살 미만-이 인신매매 되어 하루 12시간 동안 노예로 일한다고 썼다. 미국과 UN의 압력 하에 말리와 코트디부아르는 협정을 맺어 코코아 농장에 남아 있던 어린이들을 해방하고 국경감시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말리와 코트디부아르는 실제로 해결에 힘쓰기 보다는 곧 이 문제를 제기한 비판자들을 침묵시켰고 마코도 그의 직업을 잃게 되었다.

6절

BBC의 Knight는 이 문제가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였다.

7절

마코는 아직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그가 한 일을 한번도 후회했던 적은 없다.

7장

1절

2001년 6월 말, 미하원의원 Eliot Engel 책상 위에는 Knight Ridder의 기사가 올려져 있었다. 의원은 이 어린이 노예제에 대해 무언가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초콜릿 제조업자들의 첫 반응은 그들이 그러한 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엘리엇 의원은 그러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상원의원 Tom Harkin과 뜻을 모았다.

하킨은 이미 1992년 어린이 노동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미국이 어린이의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입법의 위협마저도 상당한 효과를 가

져, 특히 방글라데시의 공장에서는 5만명의 어린이 노동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낼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 어린이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벽파괴작업이나 매춘과 같은 더 위험한 산업으로 투입되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러한 부작용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나타나리라는 예상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였다. 코코아의 수입금지에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그 관련지역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칠 터였다.

이 문제는 곧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몇 달 뒤 코트디부아르는 Bouaké 조약에 서명하였고, 13명의 어린이 인신매매범을 체포하였다.

공공의 항의에 직면하여, 거대 초콜릿 회사들은 밥 돌과 조지 미첼을 그들의 대변인으로 내세워 60만여의 코코아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회사들이 알 수는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하킨으로서 선거에서 이 점을 이슈로 삼을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는 상원 농업 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또 그의 정치적 기반은 음식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아이오와주의 농지대였으므로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킨과 엔젤의 의정서는 미국 역사상 자발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려는 첫 시도였고 가장 야심에 찬 것이었다. 코코아 회사들은 코코아 체인에서 아동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6가지 정책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으며, 초콜릿 제조업자와 코코아 수출입업자들 역시 NGO와 ILO와 함께 그 시스템을 감독하고 보증하는 일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권고의 효력만 갖는 것이었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일이 아니었다.

아동권리를 위한 활동가 Anita Sheth는 그 협약의 문구가 애매모호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예제”라는 단어는 ILO의 지침으로부터 나온 강제노동의 법적 기술인 “아동노동의 가장 최악의 형태”라는 단어로 점점 대체되었다. 활동가들은 그들의 운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쓰는 “그곳은 아동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고 우리는 모든 아동이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세쓰는 인신매매금지에 더하여 아동이 하기 힘든 일-무거운 짊을 옮기는 일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핵심문제가 원생산자의 궁핍에 있음을 알아냈다. 농장주들은 경제상의 압박 때문에 가장 값싼 형태의 노동력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세쓰는 하킨-엔젤 의정서의 장기적인 효과는, 원생산자들에게 지불되는 낮은 대가와 그들이 택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의 노동력 운용 간의 직접적인 고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의문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노동조합 관계자가 “왜 단순히 코코아 열매 가격을 높이 쳐주는 해결책을 택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산업관계자들로부터 나온 답변은 “미국의 법이 가격담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주요 NGO중 오직 한 조직만이 그 의정서에 대한 찬성대열에서 빠졌다. 국제노동권기금 ILRF는 산업가들과의 어떤 타협도 거부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Natacha Thy는 ILRF에서 일하는 인권변호사인데, 코코아 의정서에서 심각한 문제를 조직에서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다. 그녀는 “‘노예노동과 관련없이 생산됨’이라는 스탬프를 찍는 것을 의도한다면 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미국의 많은 구호기구와 활동가들이 그 의정서를 모두 칭송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다.

2002년 봄 ILRF는 하이티 출신 경제학자 Marx-Valaire Aristide를 서아프리카로 보내 코코아 농장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아리스티드는 어

린인들이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농장에 강제구금 되어 있다고 결론내렸다. 농장주들은 아리스티드에게 아동강제노동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2002년 5월, 아리스티드의 조사에 기반하여 ILRF는 미 관세국에, 코트디부아르로부터 오는 모든 코코아의 수입을 정지하고 그에 대한 조사하는 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제기의 근거는 1930년부터 미국은 노예제로 생산되는 모든 수입품을 금지하여 왔다는 것이다. ILRF의 대변인 Bama Athreya는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콜릿 산업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ILRF가 보기에 하킨-엔젤 의정서는 죽은 문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의정서에 찬성했던 NGO들은 ILRF의 청원이 단지 코트디부아르를 파산시키고 그 나라에서 일하는 모두를 실직자로 만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인 게릴라 전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ILRF가 처음부터 감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쓰리야는 보이코트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으며, 코코아 생산이 노예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초콜릿 회사들이 입증하게끔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ILRF가 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에도 의정서의 지지자들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2년 7월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의정서에 모두 동의하였다.

거대 초콜릿 회사들은 언론의 기사들을 과장된 전문hearsay로 치부하고 이전에 캐드베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조사팀을 보냈다. 산업계는 그 연구조사가 ‘독립적’이라고 강변하였지만 세계코코아기금과 미국이, 그 연구를 수행하는 열대농업국제기구(IITA)의 재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담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연구끝에 IITA는 코코아 농장에서의 아동착취에 대한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노예제는 만연해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세쓰는 그 연구결과가 아동들과 인터뷰하면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묻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수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반노예 인터내셔널은 그 조사가 아동인신매매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대신 아동노동자에게 “직업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비난하였다. 또한 이들 조사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코코아 생산국가지역에서만 수행되었으며, 노동공급지역인 말리와 같은 다른 서아프리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리의 한 IITA 직원은 매주 말리 아동들이 국경을 넘고 있는 와중에서도 IITA 연구팀이 조사를 위해 한번도 말리에 오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고 하였다.

이 모든 한계들에 불구하고 IITA 연구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인정하였다. 28만 4천 아동이 서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 매우 위험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코트디부아르의 농장 중 3분의2에서는 적절한 장비도 없이 농약을 뿌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는 체계적 문제점을 더 폭넓게 밝혀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회사들은 기존 기사와 보고가 과장되었다는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2002년 8월 28일 3명의 인신매매범이 말리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은 12명의 어린이들을 운송하다가 붙잡혔고, 이 뉴스는 그 범죄 산업이 그 모든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함을 드러냈다. 이 체포는 IITA 연구발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미국언론들이 산업계의 짐을 덜어주는 승리의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로비와 언론장악시스템을, 적대적 언론에 대면하여 괴로워했던 캐드베리는 매우 부러워했을 것이다.

2001년 봄, 뉴욕 타임즈 매거진은 Finkel에게,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노예 인터내셔널

널이 코코아 농장에서의 아동노동실태를 조사한 Blewett-Woods의 코트디부아르의 노예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복사본을 건네주었다. 핀켈의 애초 의도는 다른 많은 기자들처럼 현지로 가서 아동노동예제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일했다고 말하는 아동들의 증언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구타의 증거는 치료되어 없어졌다고 하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코치를 받은 것처럼 여러명의 증언문구가 천편일률적이었다. 핀켈은 최초의 취재의도를 접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 조사하겠노라고 본사에 연락하였고, 편집자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이 정말 노예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실자고 하였다. 핀켈은 이에 동의했고, 마침내 탈고하여 인쇄된 기사의 제목은 "Youssouf Male은 노예인가?"였다. 핀켈의 전체적인 논조는 메일은 노예가 아니라 단지 전통적인 체제상의 궁핍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핀켈의 기사는 2001년에 출간되어, 거대 초콜릿 회사의 공공 캠페인에 힘을 보탤고, 개량주의자들에게는 보너스가 되었으며, 당장 인신매매를 금하는 조치를 주장했던 NGO에게는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세쓰는 메일의 사진이 전혀 다른 인물의 사진임을 발견하고는 사진 속의 인물을 탐문하게 하여 그가 그런 인터뷰를 한적조차 없음을 말하는 녹음테이프를 확보하였다. 핀켈은 세쓰에게 추궁당한 끝에, 진짜로 메일을 본적도 없을 분더러 Blewett-Woods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컴퓨터의 아동을 목격한 적도 없음을 자백하였다.

핀켈은 잡지사에서 해고당했고, 후일담으로 책을 내면서 30만불을 선인세로 챙겼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실제 인물은 없었지만 자신은 마감시간에 쫓겼고 또한 메일이라는 캐릭터는 전적으로 허구가 아니라 자신이 인터뷰한 많은 아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멀리 떨어진 가난한 국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언론상에 내비출 때 얼마나 자기이익에 대한 관심이 이슈를 왜곡시키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의정서에 의해 2005년 7월 1일 이후로 초콜릿 회사들은 '노예제와 관계없는'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의정서에서 처방된 정책실행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의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본 결과 그 성과는 미미하고 조잡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코코아 농장의 아동착취는 정치가와 기업경영자의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태에 의하여 방해받게 되었다: 전쟁.

8장

1절

통상 6월달이 되면 말리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코트디부아르 등 다른 곳으로 일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2005년 6월에는 떠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돌아온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광경을 공포에 차서 이야기하였다.

2절

Kader Quattara는 남부 말리를 떠나 약속된 땅으로 스무살 되던해에 향했다. 그는 아내

와 함께 코트디부아르로 이민을 갔던 것이다. 그는 새나라의 규칙을 재빨리 습득했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콰타라는 자신만의 농장을 갖게 되었으며 사업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때는 바야흐르 1990년대에 이르러, 더 개발할 땅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국제시장에서의 코코아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다. 우푸에가 1993년 겨울에 죽었을 때 콰타라는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생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외국인 혐오증이 바야흐르 나라를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보리안 자산가들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써서 이민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광범위한 토지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누가 외국인지를 낱알이 밝히게 되었다.

결국 콰타라 등 많은 말리인들은 리베리아 국경 인접지대인 더 남쪽의 미개발지로 내려갔으나 이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는 리베리아 대통령 Charles Taylor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었다. 테일러의 인종학살로부터 피난온 사람들이 코트디부아르로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었으며, 리베리아와의 분쟁은 곧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콰타라는 어느 길로 돌아갈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이보리의 인종차별정책도 두려워했지만, 전쟁의 위협에도 떨었다. 결국 콰타라는 가족들과 함께 서쪽으로 향해 전적으로 말리인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에 등지를 틀었다. Blolekin은 리베리아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나의 삼촌이 촌장이었죠”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평화는 환상이었다.

2002년 9월 반군 무리들이 코트디부아르 북부로부터 쿠데타를 감행하여 말리와의 국경지대까지 쓸어들어왔다. 그들은 곧 격퇴되어 다시 나라의 중앙인 Bouaké까지 물러갔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반군은 아이보리인들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말리인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무슬림 말리인의 반군과, 크리스찬이 대부분인 남쪽 아이보리인들 사이의 전선이 코코아 벨트의 정중앙을 따라 형성되었다.

콰타라는 BBC에서 전쟁에 대한 보도를 듣고서는 그가 거주하는 마을 역시 전장이 될 것을 염려하였다. 블레킨은 아이보리인들의 권역에 있었으므로 그들 말리인들은 적으로 간주될 터였다. 거의 동시에, 그들 마을의 서쪽, 즉 리베리아의 국경인접 부근에서 전투가 발발하였다. 그것 역시 무슬림들이 크리스찬과 싸우는 전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리베리아 용병들이 혼란을 틈타 한 몫 잡을 목적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더 뒤흔들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왔다. 그 용병들은 아이보리안 지주들을 위해 돈을 받고 기꺼이 무슬림 농부들을 농지에서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마을들을 훑어나가면서 인종청소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블레킨으로 다가오는데도 콰타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아내는 만달이 가까워오는 임신상태였기 때문에 뛰어달아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 와중에 그의 아내는 출산 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아기도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죽어버렸다. 블레킨에 대한 공격은 새벽에, 맨 처음에는 포병대의 진격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들이 파괴되는 동안 민간인들은 사방의 관목으로 숨어 달아났으나 용병들은 그들을 추적했다. 경무장 보병들이 뒤를 이었다. 겨우 달아난 사람들은 무슬림 반군들이 차지한 지역을 통해 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02년 봄, 말리를 떠난지 15년 만에, 처참하게 상심한 마음과 땀 한푼 없는 신세로 콰타라는 고향에 돌아왔다.

2절

1993년 우푸에의 죽음은 코트디부아르에 권력 공백 상텔르 야기하였다. 우푸에는 사후에 적절하게 권좌를 계승할 질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자신의 권력이 너무나 과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짧은 기간동안 권좌를 물려

받은 Henri Koran Bédié는 나라를 병리적인 인종주의로 통치하여 나갔다. 인종차별정책이 아이보리안들의 인기를 잠시나마 끌기는 했지만, 그 자신의 사리사욕에 대한 추구 때문에 국가의 채무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버렸다. 1998년 IMF와 세계은행, EU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원조를 모두 중지시켰다. Bédié는 다음해 쿠데타로 축출되고 General Robert Guei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 역시 똑같이 형편없는 작자였다. 장군의 치세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는 로렌 박보Laurent Gbagbo에 의해 축출되었다. 박보가 권좌에 오른 지 몇 달 뒤 국제 엠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인권단체가 조사차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57명의 무슬림 시체를 발견하였으나, 그 범죄의 책임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코트디부아르에서 벌어질 수많은 학살들의 서막에 불과하였다.

도시에서는, 특히 아비잔Abidjan에서는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가 우푸에의 경제기적이 끝났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Charles Blé Goudé라는 이름의 젊은 대학생-그는 <장군>으로 불리기도 했다-이 격노한 수천명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조직하였다. 박보는 이 군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Blé Goudé는 아비잔에 근거지를 둔 수많은 젊은 군인집단의 지도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들 군인들은 이민자들에게 폭정을 실시하였고 프랑스 기업들을 파괴하였다.

미국과 UN은 아이보리 정부에게 이들 젊은 래디칼을 진정시켜 인종차별주의적 정책을 멈추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복구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박보는 이를 거절하였다. 익서이 바로 무슬림들이 북부에 스스로 일어나 자신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바로 그 때 일어난 일이다.

후투족이 80만명에 달하는 투치족을 인종청소한 르완다 사태의 재판을 우려하여, 프랑스는 박보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물론 그런 우려도 진지한 것이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프랑스 자신의 국가적 이익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다. 1만6천명의 프랑스인들이 당시 코트디부아르에 살고 있었고, 그 나라의 80%의 기업이 프랑스 소유 또는 프랑스가 낀 다국적 기업 소유였다. 프랑스는 남북간 휴전선을 협정시키고 이를 준수케 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전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프랑스 군대가 3천명 주둔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박보에게 압력을 넣어 북쪽 반군과 권력을 공유하는 협정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무슬림 반군들이 북쪽을 통치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이와는 상관없는 두 무리의 반군이 서쪽에서 나타났다. 리베리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는 이 두 반군 그룹에 무기와 병사를 제공하여 코코아 생산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찍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하여 그의 군대의 재정을 조달한 바 있었고, 이번에도 그러한 결말의 재판이 될 터였다. 박보 역시 그의 군대 재정을 코코아 이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민 농부들은 이 혼란스러운 권력 투쟁의 와중에 갇혀 버렸다. 서남쪽의 모든 당파들의 공통된 타겟은 이민자들이었다. 시민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곧바로 인종청소의 희생물이 되었다.

3절

리베리아 인접국경에서 일어나는 잔학한 학살들은 UN 평화 유지군이 감히 그 혼란스러운 구역에 들어가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 코트디부아르는 또 하나의 르완다가 되는가? 또 하나의 리베리아? 시에라리온? 콩고?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어떤 유형의 지옥으로 아이보리인들이 향하고 있는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무리 전투가 격렬해도 서구세계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코코아들은 차곡차곡 선적되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박보에게 전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찰스 테일러의 개입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아이보리 정부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락해야만 했다.

4절

2003년 1월 프랑스는 평화계획협정을 중재하였다. 그것은 남쪽과 북쪽이 권력을 나누는 협정이었는데 실제로는 전역에 걸쳐 프랑스에게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헌정적인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난당했고, 무사심한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내세우며 이 비난을 물리치기엔 프랑스의 입장은 너무나 궁색하였다.

아동노예제에 대한 보고는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에게 보이코트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박보는 면화산업에 동원되는 아동노동의 노예제를 고발하지 않은 서구 언론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와 서구 언론을 비난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 전쟁중 아동 인신매매가 이슈로부터 멀어진 까닭은 코코아 생신지로 아동을 밀수입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졌기 때문이었다.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박보는 코코아로 채비된 무기에 대담해져서 2004년 11월 5일 공습으로 Bouaké의 반군 진지를 폭격해 버렸다. 이것은 휴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20분 이내에 프랑스는 자체 공습 작전으로 코트디부아르 정부군의 공군을 박살내어 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국가의 전역에 각종 폭력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General Blé Goudé의 젊은 애국주의자 집단이 일주일 동안 <의회>를 장악하였다. 그 실질은 자신들의 부하의 회합에 지나지 않았다. 장군은 프랑스를 적으로 삼아 아이보리안들에게 결전을 촉구하였다. 그의 호소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젊은 무장쟁들이 거리에 몰려들어 프랑스 시민들을 사냥하였다. 1주일만에 그들은 프랑스 인구의 절반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 프랑스 군대는 물론 이를 되갚에 숫자불명의 아이보리아인들을 죽였다. 이러한 치고 받기 속에서 장군의 <의회>에서 그의 군대에 연설하였다: “금주에 마스크가 벗겨졌고 이 반란의 대부가 누군지 우리는 목도하였다. 그는 바로 프랑스다.”

9장 (p198-199번역)

(전략)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몇몇 소년들은 그들의 등에 기구를 짊어지고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리고 있었다. 그들은 방혹복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그러한 농약에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방호마스크의 가격이, 그들이 시장에 열매를 내다 팔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뇌물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은 그 두가지 모두에 돈을 낼 여유가 없다. 아이러니한 진실은, 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작업의 위험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많은 농부들은 더 이상 그들의 나무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농약치기 자체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농장이 없을 것 같은 지역을 한참 거친 뒤에, Kabora는 그의 트럭을 우리가 그의 차를 얻어왔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조그만 Burkinabé 공동체에 도착하였다. 카보라는 그곳에는 많은 소년들이 농장에서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코란 학교에 나간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러한 일이 되어가는 모습이 성가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농장은 이슬람교 도사의 수용소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띠었다. 도사는 이슬람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들은 어린 노동자들의 착취를 은폐하기 위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다.

농장의 소유자는 방금 막 기도의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이렇게 먼 변두리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모하메드(농장주)는 어린이 노동에 대한 소란에 대해 들은 바 있었으며, 그래서 대답을 하는 데에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오직 나이가 많은 소년들만 일한다고 그가 말했지만, 나는 내 주위에 보이는 어린애들이 하루종일 빈둥거리도 된다는 말을 거의 믿기 힘들었다. Noël Kabora는 여기서의 노동조건에 내가 계속 꼬치꼬치 질문하자 염려섞인 표정을 나타냈다. 그 농부는 관대한 성격이었다. 그는 나에게 주위에 있는 불구덩이를 보여주었다. 거기가 바로 그가 코란 강설을 저녁마다 진행하는 곳이다. 우리의 대화는 결국 보다 덜 논쟁적인 사안으로 옮겨갔다-열매의 가격, 공급비용,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일의 어려움. 그의 대답은 내가 다른 모든 농장에서 받았던 대답과 똑같았다. 현재 농장이 열매 값으로 받는 가격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는 커녕, 경작의 비용을 대기에 모자란다고.

10장

1절

2004년 1월 이후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고, 프랑스군과 평화유지군은 민간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언론과 UN요원들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구기자들은 어느 편에 붙잡혀도 고문받고 강간당하고 실종되었다. 오직 정부의 검열을 받는 공영기자들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 Kieffer는 폭발적인 기사를 막 발행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박보의 중요한 연맹 중 하나인 세네갈의 Guinea Bissau 독재 정부에게 코트디부아르로부터 불법자금이 은밀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보는 코코아 이윤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정치적 목적이 의심스러운 곳에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었다. 키퍼는 그 후 살해위험을 받다가,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코트디부아르 정부 인사가 데려온 군인들에게 끌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2절

Blaudelaire Mieu는 22살 때 키퍼를 만나서 그와 함께 기사를 써온 동료다. 그는 키퍼가 실종된 것을 알고는 당황했다.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

3절

키퍼는 프랑스 외교관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프랑스에게 코트디부아르는 매년 수십억 유로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새로이 발견된 원유생산지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해만 가고 있었다. 실종신고가 된 뒤 프랑스 대사관은 침묵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요일, 신원불명의 백인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6시에 그 시체를 병원에 옮겼다고 연락을 한 뒤, 저녁 7시에 그 시체는 사라졌다.

5절

La Lettre du Continent지의 원칙은 기사 밑에 기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었지만 아 이보리 정부에 가장 타격을 주는 기사들은 키퍼가 썼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실이냐 어쨌든 소문은 그 자체로 위험을 발생시켰다. 키퍼는 신변의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자들이 코트디부아르를 떠나던 시기에 그곳에 남아 부패를 더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비잔의 외국 코코아 경영자는 키퍼가 실종된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일은 피할 수 없었

어요. 그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죠.> 키퍼가 사라질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친구가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당국은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6절

공식당국의 조력이 없자 키퍼의 사적 네트워크가 움직여 정보를 모았다. 그들이 세운 첫 번째 가설에 의하면 아이보리의 경제재정국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그를 납치하여 군사시설물로 데려가서 그로부터 조사과일을 뺏으려고 물리력을 쓰다가 키퍼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죽었다는 것이었다. 지역언론과 국제언론이 이 문제를 더 파고 들어가자 놀라운 세부사항들이 드러났다. 고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고, 쇠막대기로 키퍼를 수일간 후려쳤다. 것이다. 비밀경찰은 단순히 위협을 주는 것을 넘어서 대상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범죄를 은폐하여 시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언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은 아비잔에서 흔한 일에 속했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아직 금기시되고 있었다. 사건 6개월전 다른 기자를 죽인 경찰은 17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에 있었다. 박보 대통령은 암살은 비난했지만 자신의 국민이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는지는 이해한다고 하였다.

키퍼의 네트워크가 밝혀내지 못한 것은 그의 시체가 왜 이틀 뒤에 도로변에 버려진 채 나타나다가 다시 아비잔 병원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점이었다. 키퍼의 네트워크에 명백해 보였던 점은 키퍼 살인사건이 흘러가기를 프랑스 정부가 아이보리 정부보다 더 바랬다는 점이었다. <키퍼의 실종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한 프랑스 정부 관리는 말했다고 한다.

8절

박보 대통령은 처음에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표명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우 민족주의자이자 엘리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식 근본주의 개신교를 믿으며 그는 부시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가졌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아이보리안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아내의 인종차별적인 감성에 물들어 갔다. 2002년 9월에 박보는 그의 새로운 미국 공화당 친구들에게 반군에 맞서 싸우는 것은 극단적인 이슬람과의 성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박보의 변신을 주시하면서, 키퍼는 코코아 판매이윤이 국민을 위해서는 전혀 쓰이지 않고 박보의 정치적 목표에 쓰이고 있는 현실을 잡아 내었던 것이다. 코코아 이윤은 국제돈세탁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리베리아를 비롯 은밀한 채널로 분배되고 있었고, 일부는 대통령 부인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2002년 7월 키퍼는, 이윤을 이러한 채널에 사용하는 회사들에 분배하는 거대 코코아 농장주 조합의 숨겨진 경영을 노출시킨 EU의 조사결과를 내보냈다. 조합의 장 Henry Amouzou는 박보에게 키퍼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제거할 것이라고 도전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키퍼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9절

박보의 두 번째 전처인 Orange Silou-Kieffer를 필두로, Kieffer 네트워크, 그의 친구들이 프랑스 언론에 계속해서 호소하자, 프랑스 정부도 이 일을 무조건 축소하던 전략을 바꾸었다. 사법부는 Patrick Ramaël이라는 판사를 임명하여 실종사건을 조사하도록 코트디부아르로 보냈다.

라멜이 한 첫 번째 일은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것이었다. 아이보리 정부는 라멜이 Michel Legré<=친구>를 신문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자는 키퍼가 살아 있을 EO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주위인물이었다. 그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하였으나 그의 휴대폰 통화기록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Legré를 죽여서 라멜은 적어도 8명의 고위정부관리가 유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냈고 이 사건이 매우 조직적인 국가기관의 범죄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혀내다. 키퍼의 노트북이 Legré 측근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고, 그 노트북은 키퍼가 납치된 뒤 반 시간 후에 누군가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 침입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조사단은 그동안의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키퍼의 죽음이 그의 사적 원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공적인 일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10절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졌다.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그들은 희생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Legré를 유괴와 감금,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다. 국경없는기자단Reporters Without Borders은, 이러한 것을 Legré가 관련있다고 한 모두를 기소하는 대신 한명에게만 집중하여 죄를 덮어씌우는 연막이라고 비난하였다. 아이보리 경찰은 Legré에게 관련된 정부관리 7명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기소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사법부가 그들의 역할에 대해 Legré에게 진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Legré는 감옥에 갔다. 라멜은 Legré를 프랑스 파리로 호송하여 신문하려 했으나 이 요구는 아이보리와 프랑스 당국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아이보리 정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역시 그의 작업을 방해하고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라멜은 진실의 추구라는 본래 목표에는 거의 다가가지 못하였다. 습기와 열기로 지문등이 지워지는 기후 상의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라멜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더 모아 관련된 정부관리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가 너무 고위층까지 파내려고 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신문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어졌다.

11장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이윤이 부패되고 부정한 목적에 정치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이보리 정부 자체의 부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점적 다국적 기업의 활동 때문이기도 하였다.

12장 (p.284~)

UN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은 그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야인들이 Green&Black의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처음에는 말렸다. 열매에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은 너무 규모가 적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농부들이 코코아를 기르기를 원한다면, 대량유통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 년 내에 곧 코코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2001년이 되자 Green&Black에 대한 반대자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세계은행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코코아 재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결코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Craig Sam이 Toledo 지역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농부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코아 중에 가장 질이 높은 코코아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보장된 가격이 적절

한 발효기술과 건조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중앙 아메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농부들이 코코아의 질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는 질이 좋아보았자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보고서는 썼다. 벨리즈의 마야인들은 이제 전역에서 가장 우세한 지역이 되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툴레도 농부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 수는 상당히 Punta Gorada는 정기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10%가 증가하여 오늘날 그 지역의 70%의 해당연령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개선되어도, 마야인들은 초콜렛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매를 기르는 일 이상을 하지 못한다. 유럽의 관세장벽은 완제된 식품이 자국 내로 반입되는 것을 사실상 금한다(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원재료에 대한 관세보다 훨씬 높다). 오직 원재료만이 수입될 수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유럽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제조업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이러한 제도가 변하기 전에는 마야인들은 단지 열매만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결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싼 초콜릿 바를 살만큼 부유해질 수 없을 것이다.

Green&Black은 2000년대 초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크레이그 샘은 회사가 계속 확장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재원을 갖고 해낼 수 있는 한도까지 해내었고 이에 따라 보다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식품산업의 반체제적 이단아는 이제 그의 생산물을 계속 시장에 내어놓기 위한 토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 William Kendall이 등장한다.

Kendall은 1960년대에 샘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런던에서 전위적인 활동파가 아니었다. 그 대신에 켄달은 브리튼의 유기농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정에 정통한 새 세대의 일부가 되었다. 켄달은 런던에 근거지를 두 사업가였다.

(중략)

p.288~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토록 많은 소비자들이 대량 생산된 식품의 대안을 원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다: 친환경은 팔린다. 유기농은 좋은 것이다. 거대 식품 회사들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식품이 다른 것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더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 중 일부를 완화시키려고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과 방사선 노출 식품, 그 해악이 염려되는 비료에 대한 금지를 들어내어 버리기를 바란다. 유기농 식품운동의 많은 부분이 거대 기업에 의해 인수되었기 때문에, 미농무부는 젓소에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유기농교역연합OTA은 변화를 위해 많은 로비를 하고 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내걸었던 운동가들이 한때 장악했던 OTA는 이제 Dole, Kraft, the Grocery, Manufactures of America, General Mills and Tyson을 포함하고 있다. OTA의 정책연구에 대한 주된 재정지원과 선전은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Odwalla와 Kashi를 Chips Ahoy와 Sugar Pops 바로 옆에서 팔고 있는 슈퍼마켓은, 소비자들이야말로 규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을 원하지만 가격은 싸기를 바란다. 광고능력있고 동시에 유기농 식품의 원재료 중 보다 값싼 것을 찾아내는-이는 대부분 농부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유기농 운동은 현재 농산업을 강제하고 전세계적으로 농부들을 가난하

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흡수되었다: 비용은 절감하고 이윤은 더 많이 내는 식으로. 기업분석가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흐름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동력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식품이 안전하고 먹기 편리하고, 값싼 한,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가는 신경쓰지 않는다. 윌리엄 켄달은 중도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자이다. Green&Black의 새로운 관리인들은 격렬한 판매촉진과 경쟁적인 판매를 위한 본능으로 무장한 우량 기업 타입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반체제의 원칙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체제적 목표 가운데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농부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략)

공정무역운동은 1988년에 네덜란드에서 Max Havelaar가 시작하였다. Max Havelaar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한 언제나 가장 싼값으로만 팔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선견지명이 있는 활동가였다. 비타협적인 공정무역운동은 전세계의 코코아 농부들에게 마지막 남은 최선의 희망으로서 계속 권유되었다-즉, 열매를 수확하는 손과 캔디바를 포장하는 손 사이의 커지고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이다. 공정무역운동의 활동가들은 거대 초콜릿 회사에 동참할 것을, 기초에서부터 엄격한 룰을 적용시키는 것이야말로 코코아 회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로비해왔다. 그들은 공정한 무역 프리미엄이 아프리카의 농부들로 하여금 아동노동, 심지어 노예노동이라는 값싼 노동형태를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로서는 공중과의 관계에서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활동가들은 거대 초콜릿 회사들이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봐온 기록을 들이댐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기회 역시 추구해왔다. 미국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끈질긴 공정무역운동단체인 Global & Exchange는, 학교교육과정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미국인들에게, 주류 초콜릿 브랜드의 소비는 곧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그 메시지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고 순전한 것이지만, 감수성이 민감한 젊은이들의 마음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 3학년~6학년을 위한 <초콜릿공정무역운동서Fair Trade Chocolate Activity Books>는 초콜릿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부정의를 다루고 있다. 그 메시지는 더 이상 단순할 수도, 더 이상 정확할 수도 없다: <코코아 경작 농부들은 그들의 코코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어린이들은 25센트에 코인을 나타내는 동그라미를 덧붙여 코코아 열매에 몇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지도된다. 다른 페이지를 보면 그들은 코인을 덧붙여 그 가격을 팔십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